



신 현 배 | 시인, 아문문학가  
(4201708@hanmail.net)

###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 강가에서 바위로 변한 신랑 신부

옛날 경기도 가평 땅 북장리 가래골 마을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키가 크고 얼굴이 환하게 잘생겼으며 머리가 총명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하고,  
품팔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이  
가 들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색시를 짝지어 주어야겠는데, 딸을 주겠다는 집  
이 없으니 원…….’

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것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시집을 보내 봐야 그 날부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다고 생  
각하여, 딸이 있는 집에서는 총각을 사위로 삼으려 하지 않  
는 것입니다.

어느 날, 총각은 고기를 잡으러 강가로 갔습니다. 마을 앞  
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낚시질할 만한 자리를 찾아 강가를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니, 어떤 처녀가 강물에 빠져 허우  
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구해 주려고 강으로 뛰어들려다가 주춤했습니다. 처녀는 실오리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었던 것입니다.

총각은 본래 수줍음을 몹시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다 길에서 여자와 마주치면 수줍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총각은 벌거벗은 처녀를 보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처녀의 다급한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총각은 이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옷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어, 가까스로 처녀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알몸에 자신의 윗도리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보통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총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총각은 처녀가 깨어난 것이 반가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저를 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찌다가 깊은 물속에 빠지셨습니까?”

“날씨가 찌는 듯이 덥기에, 얇은 물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강한 바람이 불더니, 벗어 놓은 옷이 바람에 날려 물속에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옷을 건지려다가 그만 깊은 물속에 발을 들여놓아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옷이 떠내려가 버렸으니 어찌죠? 집에 가서야 하는데……. 야까씨,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의 집에 가서 옷을 가져 오겠습니다.”

총각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치마 저고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치마 저고리는 왜?”

“제가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해 주었거든요.”

“그랬어? 그 처녀와는 보통 인연이 아니로구나. 하늘이 맺어 준 인연이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 뒤 치마 저고리를 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고운 옷이었습니다.

“애야. 아무래도 그 처녀는 하늘이 미리 마련해 준 배필인 것 같구나. 그러니 잘 보살펴 주렴.”

“알겠습니다, 어머니.”

총각은 강가로 돌아와 처녀에게 치마 저고리를 주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이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옷까지 가져다 주시니 몸돌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누가 되었던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서로서로 도와야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처녀는 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면 평생 지아비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총각 역시 처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하늘이 미리 마련해 준 배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녀의 집은 강 건너 마을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땅 남면 관천리 마을이었습니다. 처녀는 늙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총각과 처녀는 날마다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를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각과 처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총각의 어머니와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총각의 집이나 처녀의 집이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집에서 간소하게 혼인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혼례 날짜는 음력 7월 초이렛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건우와 직녀가 1년 만에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날입니다.

총각과 처녀는 칠석날에 혼인 예식을 올린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건우와 직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날짜가 몹시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혼인을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랑 신부 집에서는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신랑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설레어 새벽까지 몸을 뒤척였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난 신랑은 빗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열어 보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렬한 기세로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혼인 시간은 미시(오후 2시)였습니다. 미시 전까지는 신부 집에 도착해야 합니다.

신랑은 사모관대(혼례 때 신랑이 예모로 쓰는 모자와 예복으로 입는 옷)를 하고, 가마를 메는 교군꾼을 앞세운 채 강가로 나왔습니다.

신부집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즐기치게 내리는 큰비로 강물이 불어나,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연지 곤지 짚고 족두리 쓰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시가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신부는 걱정이 되어 집을 나왔습니다. 강 건너를 바라보니, 신랑이 이쪽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쏟아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교군꾼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이편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신랑뿐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안타깝게 마주보았습

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때까지도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저방님!”

“남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애타게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비만 기운차게 내리고, 신랑과 신부는 이제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서로를 부르고 손을 흔들 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절한 눈빛으로 마주보

고만 있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두 사람에게 쏟아져 내리자, 신랑과 신부는 바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서 있던 자리에는 사모를 쓴 바위, 신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족두리를 쓴 바위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 후 사모를 쓴 바위는 사모바위, 족두리를 쓴 바위는 족두리바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바위가 있는 강가에서는, 해마다 칠석날이 되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